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소원 / 거룩하신 전능의 주 / Christ is Enough 예수 하나님의 공의 / 나의 하나님	다같이
대표기도		김태동
*성경봉독	요 18:3, 마27:24-25, 62-64a, 마 28:11-13	반가운
말씀	예수를 버린 자들-바리새인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주가 주되심을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가 주되심을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말려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예수를 버린 자들-바리새인(요 18:3, 마27:24-25, 62-64a, 마 28:11-13)

요18: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마27:24-25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27:62~64a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마28:11-13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가장 크게 질책을 받은 무리들의 대명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력한 세 분파(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중 하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약 2백년 전 밀려오는 헬레니즘 문화와 이방신들에 저항하여 광야로 나가 끝까지 싸우며 율법의 순수성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백성들은 큰 지지를 보냈고, 그들은 이어 회당 (synagogue)을 중심으로 율법과 전승문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장로를 세우고 판사 역할을 하며 백성들의 민/형사 및 종교 문제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종교교육과 재판권을 갖고 점차 백성들의 지도층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장로, 서기관, 제사장,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많은 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룩 회복운동’이란 좋은 뜻으로 시작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번 학살과 처형을 받는 어려움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는 부류가 되었는지는 역사의 아이러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점을 책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신랄히 비판하셨습니다. 외식(外飾)이란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갈탄 번지르르하고 속은 죽어있는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듯 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직히 섬기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 그로인해 권력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백성들만 남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살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3:7, 막11:18, 마21:46 등)

이렇듯 사람이 중심이 되면 권력 중심적, 재물 중심적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이 성경 말씀보다 강하게 작동해서,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튕겨 나갑니다. (눅16:14)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도 잘 맞춰 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대중의 지지를 받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힌 것입니다. 그 결과, 헬레니즘을 반대했던 그들은 후에 권력유지를 위해 로마 권력을 끌어들이는 등 그 결과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타락에는 성경에 대한 임의적 해석 관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모세오경) 외에도 전승문헌 (미쉬나, 미드라쉬, 탈무드, 할라카 등)을 거의 동등한 권위로 인정합니다. 랍비의 성경 해석법 (PRDS 4단계)를 보면 성경본문을 해석할 때 전승문헌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전승문헌은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수많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탈무드) 그래서 랍비들의 성경해석은 굉장히 율법적일 것 같은 첫인상과 반대로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말씀 해석 자체는 보수적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때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전통적 성경해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구약이 통합될 때 하나님의 구원사역, 은혜, 믿음, 종말 등에 대한 이해가 완성됩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이러한 내용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세상과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은 전승문헌과 자신들의 영적 상상력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의 본질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조차 매우 비성서적이 된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 맞춰지면 그 때부터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대중의 지지에 취하면서부터 그들의 영성이 타락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첫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 섬김을 왜 하는지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말씀산책

또한, 성경말씀을 내 잣대로 가감하지 않고, 순수히 받으며, 순종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해석에 과도한 자기 생각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말씀은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더 많은 노력을 ‘어떻게 살아낼까’에 기울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율법공부하던 자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삶의 현장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보배로운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잡아와 사형죄로 넘기고, 주님 부활하시자 거짓으로 제자들에게 시체를 훔친 혐의를 씌웁니다. 예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절친지 원수가 됩니다. 반면, 그들에게 탄압받던 초대교인들은 죽을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삽니다. 누가 진정한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 크리스찬(예수를 따르는 자)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의미를 놓친다면 우리도 제2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외식함 (겉과 속이 다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 내가 사람의 인정을 가장 목말라 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나는 이미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장민구)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조학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Arise 찬양팀 팀원 모집

- Arise 찬양팀으로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 예배: 매달 첫째 주 금요일 8시 (8월은 쉽니다)
- 포지션: 싱어 혹은 그의 관심 있는 포지션
- 문의: 전하영

Youth Vision 세미나

직업 설명 및 대학 준비에 대한 세미나
8월 26일(토) 오후 2~6시 30분, 2층 청년부 예배실
대상 : 중고등부 학생 및 학부모

일본인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8월 20일(주일) 오후 1:30
- Japanese Church of Austin, 3838 Steck Ave., Austin, TX 78759

Youth 교사 모집

Youth 사역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현 집사 (512-762-0002)

장년예배 영어 번역

장년예배 영어 번역으로 섬기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한국어/영어 가능한 분(1명)

중보기도 신청

교회 홈페이지와 중보기도함(사무실 앞)을 이용

소천소식

이윤선 목사님 부친되시는 이금석 집사(73세) 소천
이윤선 목사 한국 방문 (8/18~9/1)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	-----	------------------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